

“실패와 어려움도 많았지만 희망을 전하고 싶다”

전북대 졸업생 최대웅 박사,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조교수 임용

전북대학교 졸업생이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조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대웅 박사(34). 완주 출신인 최 박사는 2009년 전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알라배마 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난해 동 대학원에서 재무학 박사학위와 응용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난해 8월 재무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인 유럽금융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카이스트와 미국 알라배마 주립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등 재무학 연구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의 우수 학회

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알라배마 주립대에서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재무학 전공 필수인 기업 재무, 금융시장론, 재무 관리 등의 학부 과목을 강의하다 지난 8월부터 경영대학 조교수에 정식 임용됐다. 최 교수는 “2010년 미국에서 재무학 박사에게 도전하면서 7년 동안 실패와 어려움도 많았지만 국내의 교수님들,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여러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모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오픈식 실시

전북은행은 30일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난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6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 김제시청 손삼국 행정지원국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난산지역아동센터 조아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난산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 및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2004년 개소 후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교실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낡고 오래되어 찢어진 벽지를 교체하고, 활용도가 떨어졌던 공간에 책상, 의자, 책장 등으로 공부방을 새롭게 조성해 아동들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김제지점 직원들은 건물 2층으로 책상과 의자 등을 나르고 배치하는 공부방 조성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고, 향후 정기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2012년 5월 JB희망의 공부방 제1호를 오픈한 후, 우리지역의 미래 꿈나무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사업을 실시하며 향토은행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김제=곽노태 기자



롯데백 전주점, 다문화대 대상 사랑의 봉사활동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롯데 봉사단'은 지난 29일 덕진동 소재 '다문화대 지역센터' 아이들과 교사 총 40여명을 백화점에 초청해 사랑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9층에 위치한 '빼빼블럭'으로 아동들을 초청해, 사롯데 봉사단과 함께 블럭 맞추기와 비즈 만들기 같은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블럭 체험 이후에 6층 식당가 '경성함바그'로 이동해 피자를 비롯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롯데백화점 '사롯데 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매월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사랑의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완산경찰서, 안전한 등굣길 조성 위한 안전 캠페인 실시

완산경찰서는 30일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학교를 방문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여성청소년에게 학교전담팀이 관내 화산초등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인성나눔 활동을 펼쳤다. 또한 화산초등학교의 위치상 주로 후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점을 고려해 후문 일대에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직접 학생들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등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활동을 실시했다./이상민 기자

결혼

- ▲ 김도아(김 호·김애란씨 장남)군·김민희(김중문 부인예총회장·채영숙씨 장녀)양= 일시: 9월 2일(토) 낮 12시, 장소: 완주군 삼례 비비정농가레스토랑/야외무대, 연락처: 010-3035-0584, 피로연: 29일 부안컨벤션웨딩홀(예술회관 맞은편)
- ▲ 최창윤(전주시 前 완산구청장 최락휘·최명희의 장남)군·이지아(이호준·황귀덕의 심녀)양= 일시: 2017년 9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엔터위컨벤션웨딩 1층 미뉴엠티호텔, 연락처: 최락휘(010-9423-3391)
- ▲ 임택근(전주시 금암2동장 임상철·인병숙의 장남)군·송이리(송기웅·김미지의 장녀)양= 일시: 2017년 9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연락처: 임상철(010-8627-5575)

호남권 청년학생 통일학술회의·토크콘서트 개최

민간부문 최초로 시도되는 5대 권역 통일세미나의 '호남권 청년학생 통일학술회의·토크콘서트'가 우석대학교 교양관 6101호실에서 대학생, 탐복민, 통일교육 담당 교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세계평화청년연합 주최, 통일부, 전북통일교육센터 후원으로 개최된 '호남권 청년학생 통일학술회의 & 토크콘서트'는 1부 개회사, 학술세미나, 질의응답, 2부 청년학생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현영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장은 개회사에서 "청년학생연합은 23년간 남북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중 기억될 일이 5번의 남북청년학생 세미나였습니다. 지금 다시 남북청년학생세미나를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청년학생 통일세미나는 청년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청년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북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인 한수연 강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의 역할', 권도희 교수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김찬권 교수와 김세연 교수가 토론에 참여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통일부 후원 사업인 '청년학생 통일학술회의와 토크콘서트'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 서울, 수도권 등 5대권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역간 통일교육의 편차를 해소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은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지역우수인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9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장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이번 수여식에서 성적우수 장학생, 가정형편이 곤란한 장학생, 예·체·기능 장학생 등 2017년도 지역우수인재 138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여 총 17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7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고, 그 결과 444명이 접수하여 약 3:1의 지원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52명 선발에 353명이 접수하여 약 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 속에 지난 8. 17일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138명이 선정되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장애너지, 예사봉사단에 200만원 상당 후원금 전달

30일 군장애너지(주)는 군산시 산북동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예사봉사단을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군장애너지(주) 임직원들의 기부활동인 '사람의 1004 운동'의 모금액에서 사용되었다. '사람의 1004 운동'은 군장애너지 주변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임직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구좌(구좌당 1004원)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 후원금과 여기에 상응한 회사지원금으로 후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운동으로 군산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장애너지 박준영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사)예사봉사단 김도경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증)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789-038	송탄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치지사 010-98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1-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 현릉,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